



기업 입장 이해하고 보호하겠다

국민일보



지난 4월 17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국민일보 초청 회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광고주협회 정병철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사 임직원 60여 명과 국민일보 김성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미래를 보는 뉴스 아젠다'라는 주제 아래 김정호 국민일보 편집국장이, '쿠키가 만들어가는 바삭바삭한 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쿠키미디어 변재운 대표가 각각 매체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회는 회원설문을 통해 접수한 내용을 정리해 국민일보측에 전달했다.

사무국 | 홍보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국민일보는 조금 고지식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신문에 비해 경제면이 작아서 그럴 것지만 기사를 부탁할 때도 쉽지 않고, 오보성 기사라고 판단되어 기사 삭제 또는 톤 다운을 부탁드려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홍보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국민일보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사장님을 비롯해 많은 간부들이 오셨는데 기업 입장에서 좀 억울하거나 반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전향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호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다.

김경호 편집국장 |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다. 국민일보는 지난 3년간 완전히 바뀌었다. 최근 파업을 끝난 게 8개월 정도 됐는데, 아마 8개월 전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다. 이제 언론도 한발 더 미래로 나아가고, 새로운 창조적인 미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멀리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일보는 광고주 여러분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기사화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과거 노조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작동되어 있고, 기사에 대해 그동안 이차방정식 풀었다면 지금은 삼차방정식도 풀 수 있다. 항시라도 말씀주시고, 직접 저희들한테 전해주시면 틀린 기사는 바로잡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미션면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현재 3개 면을 할애하는데 앞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부장들께서 불만이 있겠지만 잘 설득해서 증면을 할 계획이다. 아무튼 과거는 잊으시고, 어제의 국민일보는 갔다. 8개월된, 새로 시작하는 국민일보를 많이 주목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기업가정신 함양 위한 보도에 힘쓰겠다



한편 지난 5월 15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는 조선일보 초청 회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회원사 임직원 70여 명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1000만 오디언스 시대를 여는 조선미디어'라는 주제 아래 강효상 편집국장이 '조선일보를 보면 대한민국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조선일보의 편집방향에 대한 설명을, 오지철 TV조선 대표와 김미선 앵커가 '1등 DNA TV조선'이란 주제로, 김영수 조선경제아이 대표가 '조선비즈, N스크린 시대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각각 매체설명을 했다.

을 했다.

김영수 대표는 “최근 조선비즈가 신문을 만드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밝히겠다”며 “조선비즈 신문 창간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조선미디어그룹에서 그룹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매체간 상생할 수 있고, 어떻게 최고의 시너지를 이끌 수 있는가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난 후 결정될 것이다. 최종 결정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팩트만 말하자면 신문창간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루어진 게 없고,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설문을 통해 접수한 내용을 정리해 조선일보 측에 전달했다.

사무국 | 기업 입장에서 조선일보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가깝고도 가까운 매체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0% 성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곳곳이 빨간불이다. 지금이야말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해법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투명성을 제시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기업이 잘못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금처럼 기업가정신이 왜곡되어 보도된 적은 없었다. 기업들의 투자나 기업가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조선일보에서 힘써주셨으면 한다.

강효상 편집국장 | 전적으로 동감하며, 여러분의 바람이 저희 지면을 통해서 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꼭 약속드린다. **KAA**